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마 25:40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마 25:40하).

준비물 :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가 그려진 그림.

원하면 동전이 조금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이나 현금 일정액(꼭 6만 7천원이 아니어도 됨).

짚랑!짚랑!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어린이들의 대답을 듣는다)

예, 맞았어요. 돼지 저금통에 동전 떨어지는 소리예요. 이렇게 해서 주옥이는 저금통을 어느새 가득채웠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이 저금통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무엇을 하겠어요? 일단 우리 한번 얼마나 되는지 뜯어서 세어볼까요? 자, 같이 셉니다. 백원, 2백원, 천원, 만원, 2만원, 3만원, 4만원, 6만원. 그리고 7천원이 더 있어요. 그럼 얼마예요? 예, 6만 7천원입니다. 그럼, 이것로 무엇을 할까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긍정적으로 듣는다. 아마도 아이들은 영광의 레이스 운동화나 책, 인형, 컴퓨터 게임기 등을 산다고 하든지 저금을 하겠다고 말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다 들은 뒤 곧바로 다음 이야기로 들어간다.)

이제, 주옥이는 무엇을 할까 알아맞춰 볼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도저히 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루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지치지도 않았어요. 배고픈 것도 잊었구요. 그런데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습디다.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것을 본 제자들이 영려하기 시작했지요. 그들은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어서 이 사람들을 마을로 내려보내 먹을 것을 사먹게 합시다. 이제 곧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너무나도 어이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으려면 적어도 2백 데나리온은 있어야 될텐데 어떻게 우리에게 먹이라는 말씀일까?” 제자들은 무척 답답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기들이 가진 것은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져다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잔디밭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게 되었어요. 남자만 세어봐도 오천 명이나 먹었어요.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아예 셀 수도 없었지요. 그리고 또 떡 다섯 개와 물고기두 마리로 모두 배불리 먹고서 남은 음식이 열두 광주리가 되었어요.

이제 주옥이도 오랫동안 모아온 6만 7천원으로 무엇을 할지 결정했대요. 이디오피아의 굶주

린 어린아이들에게 보내기로 했어요. 이디오피아에서 아마 그 사랑의 돈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일으킨 것과 같은 기적을 낳을 거예요.

(설교자는 오늘의 말씀인 마태복음 25장 40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를 낭독하고 간단히 기도하고 마친다.)